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인천 서구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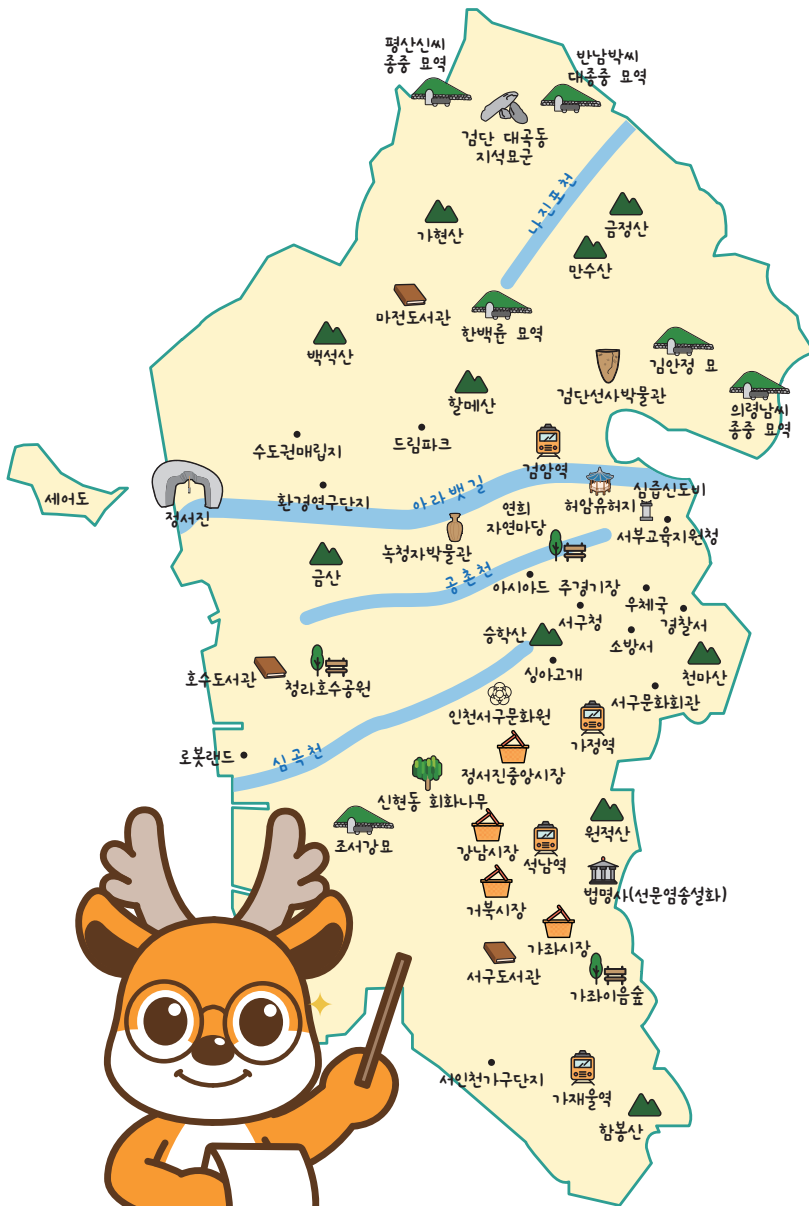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_____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우리 고향, 인천 서구의 지도와 내가 좋아하는 장소

우리 고향, 인천 서구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래 지도의 장소를 하나하나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은 우리 고향에 살면서 이름을 들어보거나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본 곳이 있다면, 장소를 생각하면서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지도에 보이는 우리 고향의 다양한 장소를 주제에 맞게 나눠서 정리해 볼까요?



자연경관

문화재

공공기관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안내지도>로 이동합니다.

문화재 명칭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참조

우리 고장의 다양한 자연환경

철마산

높이는 266미터, 본래 이름은 천마산이었어요. 심곡동 동쪽 골짜기에서 아기장수가 태어나고 천마가 낳았다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1915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토지를 측량할 때 서곶 지역을 조사하던 사람이 주민에게서 '천마산'이라 듣고 '철마산'이라고 지도에 기록하여 철마산이 되었다고 해요.

원적산

높이 165미터, 현재 서구와 부평구를 가로지르는 산이며 낮지만 가파른 산이에요.

승학산(축곶산)

높이 160미터, 조선시대 변방의 급한 소식을 알리던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승학산(축곶산) 봉수대는 1423년 세종 임금 때 세워졌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승학산(축곶산) 봉수대는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지 않다가 병인양요(1866) 이후 서양배(이양선)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로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금산

경서동에 사는 친구들 손!!! 여러분들 옛날 우리 고장의 경서동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을 아시나요? 경서동의 금산은 바다 쪽에 위치한 산으로 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여 금(金)산으로 불렸습니다.

징맹이고개(경명고개)

인천 계양구 계산동과 서구 공촌동의 경계에 있는 고개입니다. 매사냥을 좋아한 고려 충렬왕(1236~1308)은 이곳에 매를 사냥하고 길렀던 응방을 설치하고 매를 징발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징맹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징맹이고개가 한자로 표기되면서 '경명고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개에는 중심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1866년 병인양요 직후 국방강화를 목적으로 1870년 부평부사 박희방이 쌓았습니다. 현재 성은 무너졌고 일부만 남았습니다.

싱아고개

이 고개는 형태가 학이 오르는 모습이어서 '승학(昇鶴, 학이 오르다)'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클로버같이 생긴 싱아풀이 많아서 싱아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싱아고개는 가정동에서(인천봉수초등학교 맞은편) 서구청으로 넘어가는 큰 길 왼편에 있습니다.

공촌천(빈정내, 빈정천)

우리 고장 서구의 하천 중에 규모가 가장 큼니다. 원래는 상류에서 공촌동을 지나고, 연희동, 경서동, 서곶로의 빈정교와 '닭우리벌판'(현재 아시아드 경기장)을 지나 바다로 흘렀지만, 아시아드 경기장이 지어지고 매립이 되면서 지형이 변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시아드역 근처에는 공촌천이 흐르고 있어요! 공촌천에는 돌다리가 있어 건너볼 수도 있어요.

심곡천

심곡동과 연희동의 비옥한 샘내 들판을 지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이 하천의 옛 이름은 샘내(泉川,천천)로 추정됩니다. '샘내'라는 지명의 유래는 이곳의 지형과 연관이 있는데요. 물의 양이 풍부하던 상류인 서곶로를 지나고, 심곡교에 이르러 급격히 수량이 줄어들며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고 하류에서는 다시 샘이 되어 분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 고장의 하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우리 고장의 장소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입니다.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장소의 이름을 적어 붙여요?



이곳은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전문 박물관이에요. 이곳은 불로, 원당, 검단 신도시 등의 도시개발 단계에서 발견된 유적지를 보호하고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특히, 인천 서구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집터와 돌널무덤(석관묘)을 발굴 당시의 모습으로 관람할 수 있어요! 우리 고장의 선사시대 모습을 알고 싶으면 이곳으로 와주세요!



이곳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1988년 인천직할시 북구가 서구와 북구로 나뉘지며 이전에는 논밭이었던 연희동과 심곡동 일대를 개발하여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 옆에는 구민의 의결기관인 서구의회가 있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맞은 편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건축 폐자재와 폐기물이 쌓여 방치되었던 공간이었으나 환경부의 조성 사업을 통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한 우리 고장의 생태환경 공원입니다. 조류관찰대가 있어 습지 너머로 들판을 찾는 새를 볼 수도 있는데 여름에는 왜가리와 쇠백로, 겨울에는 큰 기러기와 쇠기러기를 볼 수 있어요.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는 이곳에서 사시사철 만날 수 있는 텃새입니다.



정서진 아라뱃길 아라빛섬에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해넘이 명소입니다. 정서진의 랜드마크인 이것은 2012년에 설치되었는데 고인이 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것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곳에 이어령 장관이 지은 시를 새긴 시비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에는 이곳에서 우리 고장의 대표 축제인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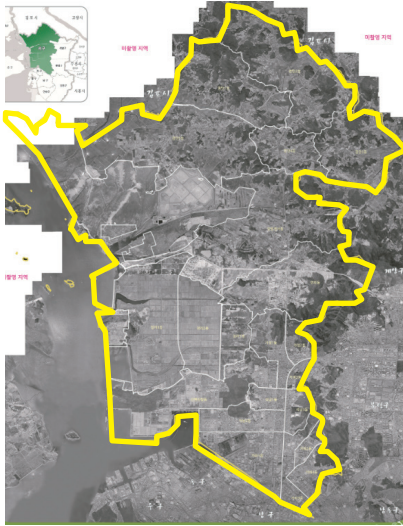
이곳은 서구의 서쪽 끝 바닷가에 있는 서구 유일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유인도)입니다. 예전 이곳은 삼남지방(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세곡을 한양으로 운반하기까지 마지막 정박지였습니다. 현재는 행정구역 상 원창동 35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8가구 37명이 주로 농어, 송어, 새우잡이 등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은 모양이 뱀처럼 길어서 섬 내부에서는 뱀의 천적인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섬은 행정선인 정서진호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보기]

청라호수공원, 인천광역시 서구청, 서부교육지원청, 허암유치지, 검암역, 정서진 노을종, 인천서구문화원, 서구문화회관, 서구도서관, 세어도, 녹청자박물관, 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자연마당, 검단선사박물관

지도로 보는 우리 고장의 모습과 변화

지도는 땅의 모습을 기호나 문자를 통해 실제 모습보다 축소시켜 평면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도는 조선시대 때 발로 걸어 다니며 직접 그린 것부터 항공영상으로 촬영한 최근의 지도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지역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과 변화 역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우리 고장은 매립과 간척 사업으로 섬이 점차 사라지고, 해안선이 단순화되며, 육지의 면적이 넓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간척 사업은 광복 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예전에는 바다였다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1996년 서구 항공지도
노란선인 현재 인천 서구의 지형과 비교해 보세요!
출처: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대동여지도에서 보이는 우리 고장(검단, 모월곶, 석곶)
출처: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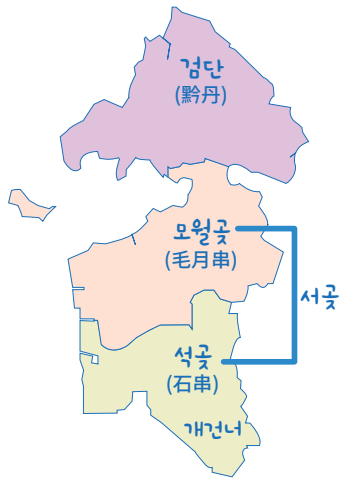
인천 서구의 모습을 담은 기본지도와 항공지도(최근)
출처:인천광역시 지도포털

석곶(石串)

1914년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통합되어 서곶면이 되었습니다. 검단 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 서구 전체는 서곶으로 불렸습니다. 우리 고장은 서쪽 해안에 길게 뻗어 있어서 '서곶'이라 지어졌습니다. 곶(串)은 바다나 호수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부분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을 포함하는 남쪽을 석곶면이라고 불렸습니다. '석곶'은 지형이 꼬챙이 같이 길게 뻗어 있으며 돌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전합니다.

모월곶(毛月串)

모월곶은 지형이 반달처럼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작은 메기의 털 모양(毛, 터럭) 같이 뻗어서 '터럭이 많은 반달과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설에는 물이 많은 고장이라 '물곶이었다'는 의미도 전해집니다. 모월곶은 현재의 연희, 검암, 심곡, 경서, 공촌, 백석동이 해당됩니다.



나룻배 타고 학교 가기

(사진출처: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인천서구문화원, 2013)

개건너

인천사람들은 서곶을 '개건너'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미추홀구 도화동과 서구 가좌동 사이에는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룻배로 이동을 하고 썰물에는 갯벌에 놓은 징검다리를 타고 건너다녔습니다. 개건너는 좁은 의미로 이 나루의 건너편 마을인 가좌동을 뜻하기도 하고 서곶 모든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1961년 도화동과 가좌동에 인천교가 놓이면서 나룻배로 바다를 건너던 풍경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검단(黔丹)

이곳의 해안이 넓은 갯벌로 되어 있었는데 흙이 유난히 검어서 '검(黔:검다)'자를 쓰고 드넓은 갯벌에 낙조가 시작되면 마치 홍학의 날개와 같이 아름다워 '단(丹:붉다)'자를 써서 검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검(黔)'이 신성하고 으뜸이라는 뜻을 가졌고, '단(丹)'이 제단을 나타내기도 해서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제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우리 고장의 법정동과 행정동

여러분이 사는 '동'은 어디인가요? 가정동? 금곡동? 연희동?

우리 고장에는 법률로 정해 놓은 21개의 법정동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동과는 달리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설정한 행정동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있는 동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이러한 지역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하는데, 지명에는 그 지역의 옛날이야기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정동을 알아보고, 지명이 정해지게 된 이유도 알아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법정동을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QR을 찍어서 내가 살고있는 행정동을 검색한 후 법정동을 확인해 주세요!



법정동과 행정동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 고장의 지명과 옛이야기

대곡동  대곡의 '대'는 大(크다). '곡'은 谷(골짜기)를 의미한다.	금곡동  금곡은 한자 해석 그대로 철이 생산되던 골짜기를 뜻한다. '쇳골'이라고도 불렸다.	마전동  이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삼(麻)을 많이 심어와서 '마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하동  당(堂)이 있는 마을인 원당동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당하동'이라 불렸다. 옛날에는 저축을 많이 하여 부자 마을이었다.	원당동  조선시대에 '원당'이라는 당(신당집)이 있었기 때문에 '원당동'이 되었다.	블로동  산에 블로초(약초)가 많이 나갔다고 하여 '블로동'이 되었다.	오류동  오동나무숲이 많았으며, 오류동의 안동포를 지켰던 용우물과 바다 용의 전설이 남아있다.
왕길동  조선시대에 풍류객이 이 마을을 왕길(旺吉)이라고 지어와 덕이 쌓이고 생활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하여 '왕길'마을이라 불렸다.	백석동  백석동 뒷산의 큰 봉우리가 흰 돌로 이루어져 흰 돌을 의미하는 백석. '백석동'이 되었다.	사천동  '사천'은 사냇물이 시작된 곳이란 뜻이다. 지금도 '사천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검암동  '검암'은 검은 바위를 뜻하며, 20여 미터의 검은 바위가 있었다는 유래에 '검암동'이 되었다.	공촌동  마을의 형태가 공(公)자의 형상을 띠 데에서 유래되었다. 고려시대에 매사냥을 위해 매사육을 하는 '왕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경서동  '경서'란 서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염전이 많았다.	연희동  신라시대 여인들이 이곳에 데려와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고 해서 '연희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심곡동  심곡동은 산계곡이 깊은 곳에 생긴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구청, 의회, 관공서 등 많은 행정기관이 모여있다.	신현동  신현동은 새로운 고갯길을 만든다 라는 뜻을 가진 '새고개'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청라도  푸른 섬이라는 뜻의 '청라도'라고 불렸다. 1991년 청라도는 육지가 되어 지금의 '청라'가 되었다.	가정동  조선시대 개국공신 '조반'이 별장을 짓고 '가정(佳亭)'이라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했다.	원창동  나라에 바치는 곡식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 모아두는 창고가 있던 뜻에서 '원창동'이 되었다.	석남동  '돌'의 남쪽에 있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가좌동  가재가 많이 사는 동네라는 뜻으로 '가좌'가 되었다.

도로명의 뜻은?

인천 서구 법정동 21개의 지명 유래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검바위로

계양산의 줄기인 허암산 서쪽 끝에 20여 미터의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마을을 '검바위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검바위는 검암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거대한 검은 바위의 흔적은 서인천고등학교 교정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요지로

도요지란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를 뜻합니다. 우리 고장에는 경서동 국제 컨트리클럽 골프장 안에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녹청자를 구워낸 가마터가 있습니다. 1965년 인천시립박물관 조사팀에 의해 발굴된 녹청자 요지는 약 10~11세기 경(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0년 6월 8일 국가사적 제2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서진로

정서진이란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있는 나루터라 하여 정서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재울로

옛날 가좌동에는 맑은 시내가 흘러 시내 아래쪽에 가재가 많이 사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연못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아 말라버렸고 바닥이 보인 큰 연못에서 수백 년 묵은 큰 가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을 개울에서 서식하는 '가재'와 늪을 지칭하는 '울'이란 말을 합쳐 가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재울은 '가재울-가재-가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지명사전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_불로장생의 약초를 댄 불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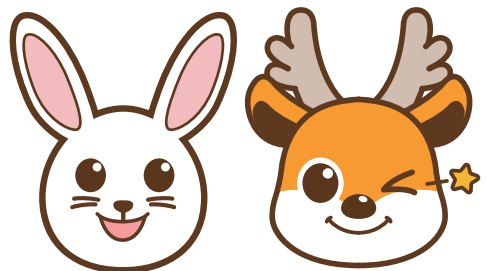
검단동 불로리 마을에는 만수산이 있습니다. 불로동과 만수산은 불로장생(不老長生,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뜻)의 약초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을에 살았습니다. 노인 부부는 몸이 늙고, 병들어 일도 하기가 힘들고,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양식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나가서 먹을거리를 구하리다." 그러자 할머니가 "힘이 없어 남의 집 농사일을 할 수도 없고, 나무를 해서 내다 팔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거리를 구해요?" "내가 언젠가 한번 뒷산에서 약초를 캐서 의원한테 좋은 값을 받은 일이 있지 않소?" 할아버지가 대답하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을 오르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너무 힘이 드네, 괜히 올라왔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풀이 무성한 산비탈에서 토끼와 고라니가 이름 모를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풀을 뜯는데 열중하는 토끼와 고라니의 뒷다리를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토끼와 고라니는 엄청 빠른 동물인데....' 하면서, 두 마리를 첩 덩굴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습니다.

'고라니와 토끼가 늙은이한테 잡히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뜯어먹는 풀이라면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러고는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약간 쓴맛이 나기도, 고소한 맛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풀을 먹자마자 할아버지는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잡은 토끼와 고라니를 번쩍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라니와 토끼, 두 마리를 번쩍 들고 집으로 온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아유, 영감~~ 이게 다 뭐예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이렇게 두 마리나 잡아 오다니요!" 하고 좋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토끼 한 마리는 그날 저녁에 고아 먹고, 고라니는 다음날 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노부부의 하얗던 머리가 검정 머리로 변하고, 얼굴에 주름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몸이 이상해!" 할아버지는 씨름 선수처럼 두 팔을 걷고 초가집의 기둥을 흔들며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 뜯어먹은 풀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다시 그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봅시다!" 그 후, 노부부는 매일 산으로 가서 그 약초를 캐 먹었고, 부부는 젊은이처럼 머리로 까맣게 변하고, 힘도 되찾아 농사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산에 약초를 먹고 젊어졌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갔고, 많은 사람이 뜯어가는 바람에 그 약초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먹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미 환갑(61세)이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약초를 많이 먹은 덕분에 3갑자(180년)를 더 살았다고 하니, 무려 240살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 때문에 약초가 있었던 산의 이름은 '오래 산다'는 뜻의 만수(萬壽)산이 되고, 마을 이름은 '늙지 않는다'는 뜻의 불로리(不老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에 전하는 옛이야기를 만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야기출처:지역N문화<이야기자료>



'볼로리' 설화 이외에도 우리 고장에는 여러 가지 옛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고장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이야기 자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검색해 보세요.

천마와 아기 장수

철마산의 원래 이름은 천마산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천마가 살았다는 전설과 아기장수가 태어났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태몽을 꾸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아주 힘이 센, 아기장수였습니다. 이 소식은 관아에까지 전해져 고을 사또는 아기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관군이 물려온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군의 손에 아기장수가 죽자, 천마산 골짜기에서 천마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흔들며 들려왔다고 합니다.

탁옥봉의 신선

탁옥봉은 심곡동 앞말 뒷산을 가리키는데 유난히 산이 깊어 '기피울'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오래된 어느 날, 샷갓을 쓴 나그네가 농부들에게 한나절만 건디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밤에 비가 온다고 예언하였지만 농부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갈 때 탁옥봉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고, 밤이 깊어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 만난 나그네가 부는 피리라고 여겼으며 그 소리를 범상치 않게 여기고, 피리 소리가 비를 불렀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리 소리가 나는 탁옥봉으로 올라가니, 바위에 곳곳이 가부좌를 틀고 묵상을 하는 나그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밥을 먹지 않고, 술을 먹고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후로 이 나그네를 도인으로 부르고, 마을의 평화가 도인의 기원이라고 믿으며 깊이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의병장 조현의 가족이 피난했던 인천 울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울도(栗島)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후율(後栗) 조현(趙憲, 1544~1592)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조현은 이율곡(율곡 이이)을 좋아해서 '후율'이란 호를 썼다고 합니다. 조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몸종을 시켜 울도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가족과 몸종의 처가를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섬을 조현의 호를 따서 '울도'라 이름 지었습니다.

관가에서도 잡지 못한 장사

인천 서구 시천동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박천봉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평소에는 우직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나 술만 먹으면 술주정이 심해서 그의 힘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박천봉은 술만 먹으면 힘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를 집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기둥뿌리가 뿔뿔히 나갈 듯이 집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포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가두어졌으나 탈옥을 하고 달아나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인심이 넘치는 두밀마을

대곡동 두밀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막는다는 뜻의 '두밀(杜密)'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전합니다. 옛날에 마을의 사이가 산으로 막혀있어 사람들은 산기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님이 땅 밑으로 수맥이 지나가니 한 길만 파면 물이 펄펄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곡식이 넘치면 아낌없이 남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의 예언대로 물과 곡식이 넘쳐서 사람들은 그곳을 '가마'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굶주린 사람들이 두밀로 찾아왔고 두밀마을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우며 인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과거와 현재, 인천 서구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에 논과 밭 등을 찾아볼 수 있나요?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고장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인천 서구 가좌동의 모습, 1960년대

이곳은 바로, 1960년대 가좌동의 모습이란다.
왼쪽의 논과 밭이 보이니? 지금 그곳이 한신휴플러스 아파트가 있는 곳이거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구나. 중간에 지붕이 보이는 곳이 바로 가좌시장의 초기 모습이란다. 저 멀리 물길을 건너야 송림동과 동인천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었지. 어떻게 갔냐고? 어떻게 가긴... 나룻배를 타고 갔지.



과거와 현재, 인천 서구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요?



1973년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현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모습



1973년 백석동 한들부락



현재 백석동 한들지구 모습

사진출처:「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인천서구문화원,2013)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1963년 석남초등학교 앞
보리밭길 앞에서



1957년 서곶초등학교
가을운동회



1963년 가좌농민학교 학생들
가좌농민학교는 현재 가정초등학교 인근
현대아파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



1939년 서곶공립보통학교
6학년의 월미도 수학여행

요즘 우리는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나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월미도 수학여행도 우리에게 큰 모험이었습니다.

사진출처:「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인천서구문화원,2013)

60년 전, 우리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살펴볼까요?

1963년 5월 3일 금요일, 맑음

오늘은 형아, 동생들이랑 학교에 갔다가 시천천(현재 검암동~ 경서동을 흐르는 하천)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민물 새우랑, 미꾸라지를 잡아서 불을 피워 구워 먹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소 먹이도 안주고 하루 종일 나가서 논다고 꾸지람을 하셨다. 소보다 내가 더 배고픈데... 어머니는 왜 맨날 소걱정만 하시는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내일은 토요일!! 학교 마치고 갯벌에 가서 조개도 캐고, 옆에 염전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하기로 했다. 원래 오늘 수영하려고 했는데.... 더 늦게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일이 빨리 와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서 구워 먹고 싶다. ㅎㅎㅎㅎㅎㅎ~~~~~~

우리 고장의 인물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우리 고장 출신의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 고장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이었던 조반(1341~1401), 뛰어난 문장실력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충직한 관리로 한평생을 보냈던 류사눌(1375~1440), 조서강(1394~1444), 허암 정희량(1469~?), 심즙(1569~1644) 그리고 추사 김정희 이래로 대한민국 최고의 서예가라고 불리는 검여 류희강(1911~1976)이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장의 인물 가운데 일제강점기(1910~1945)에 자신을 희생하여 대한독립에 일생을 바쳤던 멋진 독립운동가를 만나러 가볼까요?

주비단(籌備團)을 결성하여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다.



심영택(1869~1949)
당하동

심영택 선생님은 1920년 이규승, 장응규, 여준현 등과 서울 경신학교에서 주비단을 조직하고 초대 사령장을 맡았습니다. 주비단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결사 단체로 독립군 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지원하고 대한독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임시정부가 발간하는 '독립신문'의 연길 지국장을 맡기도 했으며 해방 이후 1945년에 조직된 광복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모습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1896년 창간한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과
임시정부에서 1919년 발간한
독립신문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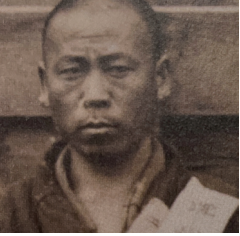
상해판 독립신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류완무(1861~1909), 시천동 - 김구 선생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다.

류완무는 시천동의 진주 류씨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류완무는 을사늑약(1905)이후 인천을 떠나 정확한 행적을 찾기는 어렵지만 국내외를 누비며 독립운동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류완무는 김창수(백범 김구)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김창수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 육군 중위 쓰치다를 살해한 후 인천감리서로 이감된 상태였으며, 류완무는 청년들을 조직하여 김창수의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1898년 3월 김창수의 탈옥 후, 류완무는 '백범 김구'라는 이름을 지어 주기도 했습니다. 김구의 『백범일지』에는 류완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가무잡잡하고 망건에 검은 갓을 쓰고 의복을 검소하게 입었다. 지체 높은 양반으로 학자의 기풍이 있었고 반상을 구별하지 않았다." 류완무는 북간도와 연해주 등지를 다니며 국권회복에 참여했으며 1953년 정부로부터 순국선열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인물

황어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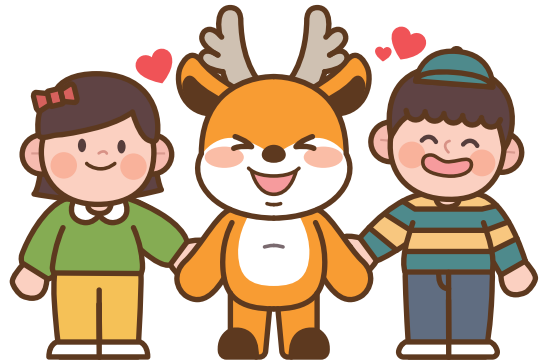
심혁성(1888~1958)
오류동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황어장(계양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황어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을 모아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3월 28일에는 오류동에서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는 등 인근 지역의 만세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하1호 근린공원 항일독립운동 기념비에서 서구의 독립운동가를 만나 볼까요?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1번 출구로 나와 이마트 검단점을 등지고 길 하나를 건너면 당하 1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당하 1호 근린공원은 봄이면 인근 주민들이 모여 찾는 벚꽃 명소이기도 합니다. 졸졸 흐르는 하천을 보며 산책하는 사람들로 늘 활기찬 이 공원에 특별한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하1호 근린공원에 인천 서구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항일운동기념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공원에는 구한말 항일의병운동부터 3.1운동 참여자, 만주와 중국,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이름과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인 심영택, 류완무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산책하며 기회가 되면 기념비에 적힌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강추위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끝내 고귀함을 피워내다”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산책하며 만날 수 있어요.
당하1호 근린공원의 항일독립운동 기념비

우리 고장의 문화재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알아볼까요?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인천 서구에는 어떤 문화재들이 있을까요? 우리 고장의 문화재들을 살펴볼까요?

번호	종목	명칭
1	사적 제211호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2	천연기념물 제315호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3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2호	심즁신도비
4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0호	선문염송설화 권1-30
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서곶들노래
6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0호	휘모리잡가
7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고법(북.장구)
8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호	류사눌 묘
9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	조서강 묘
10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3호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11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4호	한백륜 묘역
12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7호	김안정 묘 및 출토 묘비
13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	허암 정희량 유허지
14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9호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15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0호	의령남씨 종중 묘역
16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1호	평산신씨 종중 묘역
17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6호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17개의 우리 고장 문화재가
소개되어 있어요.



문화재 명칭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참조

문화재의 종류

유형문화재 (예) 빗살무늬토기, 금관, 다보탑, 석가탑, 청자, 반가사유상 등
역사적·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가운데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을 뜻합니다.

무형문화재 (예) 서곶들노래, 종묘제례악, 풍물놀이, 농악, 판소리 등
언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형태가 없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말해요!

기념물 (예) 신현동 회화나무, 종묘, 참성단, 원구단, 사직단 등
성곽, 옛 무덤, 궁궐, 도자기 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동굴 등 특별한 자연현상 등의 생성물이 포함됩니다.

민속자료 (예) 강릉선교장, 구례 손씨 저고리 등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일상생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곧고 올바른 조선 관리의 삶을 보여주는 [심즁신도비]



심즁신도비는 청송심씨의 가문의 묘들과 함께 있습니다.

신도비는 왕이나 높은 벼슬을 가진 자의 무덤 앞에 세운 비석으로 주로 왕의 명령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신도비에는 죽은 자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삶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 공촌동에는 청송 심씨 조상들의 묘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총 3개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심즁'(1569~1644)신도비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신도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심즁은 1569년에 태어났고, 총명하고 심성이 자상했으며 7세 때부터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2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심즁은 탐욕스러운 관리를 벌하였고,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광해군 때 간신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관직을 잃었지만 곧 복직하였고, 충직한 관리로서 원리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1636년 형조판서(지금의 법무부 장관)로서 남한산성에 왕을 모셔 따랐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심즁은 1640년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1644년 병이 깊어졌으며, 그해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 [신현동 회화나무]

1982년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신현동 회화나무는 나무의 나이가 500여 년에 달하며 조선시대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회화나무를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나오며, 나무 근처에 잡귀신이 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화나무는 고결한 선비의 집이나, 서원, 사찰, 대궐에서만 심을 수 있었고 특별히 공을 세운 학자나 관리에게 임금이 상으로 내린 나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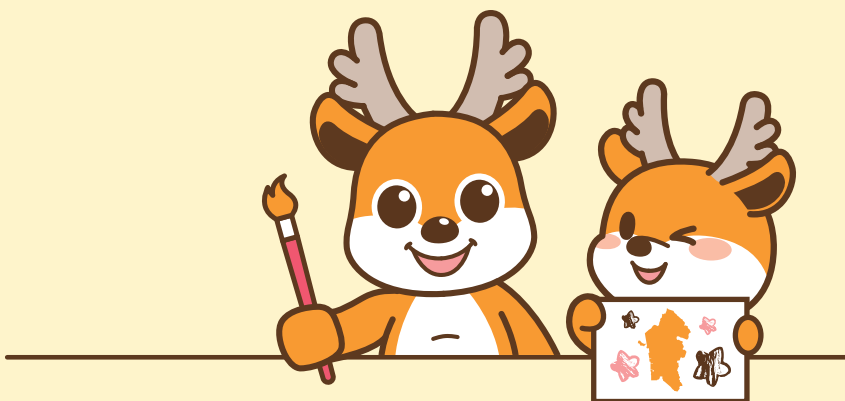
신현동 회화나무는 500여 년의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무더운 날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꽃이 위에서부터 피면 사람들은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 제사인 당제를 통해 재해를 면하고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회화나무 당제는 지금도 매년 5월 28일에 회화나무 앞에서 신현동 주민들에 의해 열리고 있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위)
신현동 회화나무당제 모습(아래)

이 자료집은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내용과 연계됩니다.

학년·학기	단원	학습내용
3학년 1학기	1. 우리 고장의 모습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와 모습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문화유산
3학년 2학기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땅의 생김새에 따라 다른 생활 모습,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
4학년 1학기	1.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도로 본 우리의 모습과 우리 지역의 중심지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인천 서구 여행

발행일 2023년 3월 27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쓰리엠타워 7층)

전화 032-582-4341

팩스 0502-582-4742

Web www.inscc.kr

발행인 정군섭

기획 서덕현

편집 임혜선, 김혜정, 김인의

감수 김영준

디자인 아트비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 있습니다.

※ 교육자료 활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상업적 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